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 교육을 생각한다 | 문화와 창조 | 도시와 삶

창조적 광주문화재단을 기대하며



이무용

도시경쟁력은 차별화된 도시가치를 창출하여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도시브랜드를 창조할 때 생긴다.

이를 위해 도시마케팅 전담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민관파트너십 조직이 필요하다.

광주의 도시경쟁력, 도시브랜드 파워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2007년 세계적인 도시브랜드평가기관인 안홀트-GMI는 광주의 도시브랜드가치를 5대 광역시 꼴찌인 약 4조 580억원(국가브랜드가치의 0.7%)으로 발표하였다.

광주시에서도 도시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돌파구를 찾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도시마케팅본부 폐지되었고, 그 대안으로 광주브랜드마케팅을 담당하고자 제안된 광주문화관광공사 설립 역시 재검토되고 있다.

세계적인 도시브랜드경쟁력 평가기관이 제시하는 평가지표들을 보면 경제, 문화자산, 환경, 여가생활, 시민, 인프라가 망라되어 있다. 도시마케팅과 브랜드를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는 지자체의 어느 한 부서가 담당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파트너십(BCDP), 버미엄 마케팅 파트너십(BMP)의 경우처럼 세계 주요 도시들이 민관파트너십 조직을 도시마케팅 전담기구로 만들고 있는 이유다.

도시경쟁력은 차별화된 도시가치를 창출하여 시민, 관광객, 기업 등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도시브랜드를 창조할 때 생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조정, 이미지 홍보, 브랜드 개발, 타깃맞춤, 커뮤니케이션, 지역네트워킹 등 이른바 도시마케팅 전담기구의 6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민관파트너십 조직이 필요하다.

우선 광주시청 내에 인문문화창조도시 마케팅·브랜드의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는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민과 관을 매개하고 네트워킹하는 브리지(Bridge) 조직이 필요하다.

단기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광주문화재단은 공공조직이 아닌 문화거버넌스를 실현하는 플랫폼 조직이 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예술진흥위, 정보문화산업진흥위, 디자인센터, 컨벤션뷰로, 5·18 기념재단, 비엔날레재단, 광주발전연구원 등 7대 공공문화기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문문화브랜드를 창조하는 네트워커(Networker) 역할을 하길 바란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과학기술 수준 지역 편차 이렇게 심해서야

전국 16개 지자체 간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수준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간의 격차가 너무 커 과학기술 부문도 수도권 집중이 극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개발원이 지역별 과학기술 인프라와 성과 등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I)는 서울이 17.923점(31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15.752점), 대전(15.116점), 인천(9.757)이 뒤를 이었다.

특히 광주의 경우 9.098점으로 5위를 차지했으나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 전남은 더욱 참담하다. 7.060점으로 14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우리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과학기술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하지만, 과학기술 수준의 지역별 불균형이 이렇게 심해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정부는 지방 R&D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대학을 지역별 전략적 핵심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광주의 경우 9.098점으로 5위를 차지했으나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의 격차가 너무

인구 많은 광주 북구 '치안부재' 언제까지

광주시 북구가 시내 5개 자치구 가운데 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많다고 하니 주민 불안 등 걱정이 앞선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최근 분석한 '2008년~2010년 상반기 5대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북부경찰서 관내는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건수가 1만790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북구는 또 살인·강간 등 강력사건도 424건으로 2위인 서구의 326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인구 1000명당 범죄 발생 비율도 동구, 서구에 이어 3위로 나타나 치안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구와 서구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지만 유흥가가 많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범죄 현황은 이제 북구와 서구 주민 불안 등 걱정이 앞선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최근 분석한 '2008년~2010년 상반기 5대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북부경찰서 관내의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건수가 1만790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범죄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책이다.

중고칼럼



송정용

이스라엘에 유월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사실은 부끄러운 유월절이 아닙니다.

그때, 소수부족으로 살아남는 방법이 강대국의 우산 밑에서 번식해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동하다 죽은 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쓰러져 갔지만 그러한 죽음들은 나약한 민족의 서글픈 죽음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정신 차려야 할 100년 전의 모습이나 오늘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광복절 유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출애굽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그런 당연한 유월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통곡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유월절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의 통곡도 하늘에 닿아 광복절의 눈물겨운 감격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0년 전 일본, 소련,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려운 외교로 탈출구를 찾아보려 했지만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국제사회는 자기 이익과 힘센 자의 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까? 그때 종살이 때의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였습니다.

기고



박래호

개과부린(改過不吝)이라는 말이 있다. 이 사자성어는 서경(徐經)4권 중 중괘(仲觀之辭)에 있는데 그 주석(註釋)을 읽어보면 허물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않으면 자기의 잘못을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남의 능력을 시기하지 말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니 이 두 가지가 함께한다면 공경하여 사육이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난달 시계이에 도시노리 당시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일(韓日)신시대 공동 번영을 지양하며'를

김씨의 투서는 애국심에서 표출된 것이라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외교관계를 망치는 것이라는 의견도 역시 애국심에서 나온듯하다.

김씨의 정의롭고 용감한 행동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일본은 무릎 꿇고 용서 빌어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던 중 관객에서 뛰어난 김모씨로부터 투서 공격을 당했다는 보도를 봤다.

김씨는 '우리 마당 독도 지킴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강연이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 남북이 분단된 원인은 일본의 강점이라면서 연단으로 뛰어나가 손바닥 반 크기의 돌(시멘트)을 던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듯하다. 사이버 공간에는 김씨가 일본대사에게 쌓이고 쌓인 분노를 던졌으며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외교관계를 망치는 것이라 주장도 맞서고 있다.

종지에 나뭇 이름 표시 "식당의 친절에 감사"

얼마 전 강원도 설악산 쪽의 작은 한식당을 갔다. 이 식당에서는 조그만 나뭇 종지에 작은 글씨로 취나물, 고사리, 참취, 쑥바귀 등 예쁘게 나뭇 이름을 써 놓았다.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배려와 친절로 인해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우리 산나물들을 쉽게 알릴 수 있고 우리 토종 식생활에도 더 친근감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을 듯했다.

일본정치가 최고 책임자가 역사 앞에 세계 앞에 당당히 나와 서경(經經)에 제시한 개과부린(改過不吝)의 마음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면 이번과 같은 투서 사건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다.

우리 음식은 더 널리 알리고, 친근감을 갖게 함은 물론 관광지에서의 친절로 인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이런 작은 노력들이 한식의 세계화와 우리 전라도 농산물의 소비 확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無等鼓

에버랜드가 퇴역하는 놀이기구에 성대한 은퇴식을 해주기로 해 화제다. 놀이기구에 대한 은퇴식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은퇴하는 놀이기구는 '우주관람차'. 우주관람차는 거대한 풍차처럼 보이는 휠에 36대의 차를 매달아 돌리는 기구다.

우주관람차는 27년 10개월 근속하면서 총 635만5470회를 운행해 탑승객만 20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것은 대단한 기록이다.

화려한 은퇴식은 11일 밤 열린 한국과 나이지리아 축구 국가대표팀 간 평가전에서 있었다.

이문재는 17년간 4번의 월드컵 출전을 포함해 A매치(국가대표 간 경기) 132경기로 한국 선수로는 홍명보(135경기)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은 출전 기록을 세웠다.

이문재는 하프타임 때 열린 은퇴식에서 "국가대표 선수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뛰면서 행복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팬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으며 많이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은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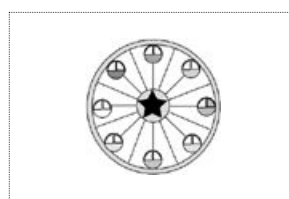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